

## 신임 학회장 신년 인사말

“이게 제가 갈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즈 뮤지션인 유복성 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거장이 아니라 ‘거지’ 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음악은 걸어가야 할 길을 의미했고 그렇게 걸어 온 길이 그의 인생인 듯합니다. 언제인가부터 모두가 꿈을 말하라 하면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꿈은 대통령이라는 고전적인 소망부터 공무원, 선생님이로 이어지더니 급기야는 아무도 이런 ‘꿈’ 조차 이야기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에 매혹 되어 탁구 라켓을 드럼 삼아 연습하며 모든 것을 던져버렸던 이런 명인의 꿈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제 기억을 호출했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여주인공이 읽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책이지요. 사실 소설의 내용보다 글을 쓴 작가의 자전적인 삶이 더 감동적인 소설로 기억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여 충상을 입게 되면서 작가가 실명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글을 통해서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이 작품의 탄생 배경이 되지요. 20세기 초 혁명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갈 길’을 걸어갔던 러시아 작가의 삶과 글은 1980년대 반지하방에서 예민한 자의식을 달래며 독서하던 우리네 대학생들에게 아마도 귀감과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1980년대의 끝자락에서 출발한 우리 학회는 일종의 소명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기반으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서 러시아어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그 성과를 학계와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좁은 틀을 벗어나 대중성을 지향한다는 것. 이러한 지향점에 우리가 얼마나 동의하고 있고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는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인문학조차 시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지금, 학회별로 저마다의 지향성이 절실한 지금, 우리가 가야할 길을 다 같이 꿈꿔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학회장의 임기를 시작하며 직함의 무게가 더 없이 묵중하게 느껴집니다. 강철은 못 되어도 매서운 비판의 매를 강철처럼 견디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회원님들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4대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장 이 규 환